

민주 압도적 승리… 지역 현안해결 힘 받을 듯

송갑석·서삼석, 전략공천 압박 이겨내고 독심으로 지역 지지 정치신인 키워 2년 후 총선 대비…지역 내 새 정치 안착 ‘과제’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선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압도적 표 차로 승리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송갑석 당선인이 민주당평화당 김명진 후보를,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 당선인이 민주당평화당 이윤석 후보를 각각 누른 것이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여당 국회의원은 기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을 포함,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동안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전남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새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지역발전에 뜻을 모으기로 쉬워졌다.

두 당선인의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당선인 모두 평화당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평화당이 사실상 제1당이다. 광주·전남을 지역구로 둔 17명의 국회의원 중 바른미래당 4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 6명을 빼고 모두 평화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평화당 후보에게 2~3배 이상의 득표를 하며 승리했다. 지역민심이 호남정치의 주역으로 평화당이 아닌 민주당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당선인은 평화당 김명진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렀다. 그가 광주 서구갑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온 반면 김 후보가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지역구를 옮긴 것도 표차를 벌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무안군수를 지낸 서 당선인과 평화당 이윤석 후보의 대결은 선거 전부터 관심을 끌여왔다. 3선 군수 출신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또 서 당선인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민주당합당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했으나 아쉽게 패배한 바 있다. 따라서 서 당선인은 6년 전 패배를 이번에 설욕했다.



13일 송갑석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배우자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두 당선인의 승리는 개인의 영광과 기쁨을 넘어 지역 정치권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당선인은 그동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왔다. 중앙무대에서 관직이나 당직 활동을 하지 않고 지역을 지켜왔다. 더욱이 두 당선인 모두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전략공천 압박을 이겨내고 경선을 통해 후보자리를 쟁취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민과 지역인토, 지역 시민사회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 두

후보의 버팀목이 됐다.

즉, 그동안 중앙 무대에서 장·차관이나 주요 당직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와 중앙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역민의 힘에 의해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다. 나아가 두 당선인 모두 50대여서 어느 정도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도 받는다.

극적으로 후보가 되고 압도적 승리를 한



무안영암신안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만큼 두 당선인은 앞으로 지역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송 당선인은 광주에서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이 된다. 서 당선인도 이개호 의원이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전남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은 여당의 힘으로 지역 예산과 사업을 따라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민은 두 당선인의 더욱 중요한 역할

로 호남정치의 중심을 잡아 호남정치를 살려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단, 송·서 당선인은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을 각각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선인은 지역민에게 평화당을 뿌리치고 민주당을 선택한 의미를 받들어 정치신인을 키워 2년 후 총선을 대비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386 운동권 출신…우여곡절 끝 3전4기

송갑석 당선인

송갑석 당선인은 1966년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 광덕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전남대 재학 중 학생운동에 투신,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지방대 출신으로서는 처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했다. 1990년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으로 구속돼 5년간 옥살이도 했다.

그는 출소 후 전대협동무회와 전남대 민

주동우회에서 활동하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광주 남구에 출마했으나 무소속 강운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또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합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려 했으나 중앙당에서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바람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시 민주당합당 박해자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어 2016년 제20대 총선 때는 경선에 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해자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으나 본선에서 국민의당 박람에 밀려 송기석 후보에게 석패했으나 무소속 강운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또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박해자 전 의원을 누르고 후보가 됐다가 승리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광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사)광주학교를 창립,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19대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아 정권 창출에 이바지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3선 무안군수…재임중 청렴 처신 호평

서삼석 당선인

서삼석 당선인은 1959년 무안군 현경면에서 태어나 무안현경초·무안현경중·조대부고·조선대를 졸업했다.

서 당선인은 지난 1988년 평화민주당 박석무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2002년 제3회 전국동

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무안군수 선거에 출마,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 그는 무안군수 재직 시 관사를 반납하고 관용차는 승합차로 바꾸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아버지 장례식 때 조의금을 받지 않는 등 청렴한 처신으로 목민관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무안·신안 총선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퇴했으나 민주당합당 경선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윤석 후보에 밀

려 탈락했다. 또 2016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국민의당에 밀려 3선 전남지사 출신인 박준영 후보에 패배했다. 그러다가 박준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했다.

국민의당 박람이 거센 때에 떠나지 않고 촛불현장을 버텼으며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전남도당 선거대책공동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한국·바른미래 최악 참패…보수야권 지각변동 불가피

與 최대 130석 예상…한국당, 홍준표 사퇴 요구 봇물

전국 국회의원 재보궐 결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접전으로 분류된 충북 제천·단양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곳,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석수가 현재 119석이란 점에서 최대 130석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석만 추가하는 한국당(113석)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13일 밤 11시30분 현재 민주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지역은 ▲서울 송파를 최재성 ▲서울 노원병 김성환 ▲인천 남동구 맹성규 ▲경남 김해를 김정호(68.5%) ▲부산 해운대를 윤준호(54.4%) ▲울산 북구 이상현(52.2%) ▲충남 천안갑 이규희(56.8%) ▲충남 천안병 윤일규(65.9%) ▲광주 서구 갑 송갑석(85.1%)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72.4%) 후보 등이다. 경북 김천은 송언석 한국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국당 후보로는 유일하다. 충북 제천·단양은 이후삼 민주당 후보가 압대영 한국당 후보와 오차범위에서 경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경남 김해 을, 부산 해운대 을, 울산 북구 을 등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 재보궐 전선에서 승리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한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지방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일꾼들을 힘을 실어줬다 생각한다”면서 “특히 평화와 경제와 직결되고 평화가 민생에 직결된다는 호소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참패한 야권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개표 상황실에는 깊은 한숨과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날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던 홍준표 대표는 내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대표직 사퇴를 시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유한국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당협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당사를 점거하고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 심각한 내용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완벽한 참패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이날 중앙당사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보던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컨도중대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이 시대에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다.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민평당 지도부는 실망감을 보이면서도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소 8곳 정도는 승리하지 않았느냐며 선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였다. 민평당 지도부 관계자는 “후보들이 거센 문풍(문재인 대통령 바람) 앞에서 선전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호남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로부터 교부 받기 바랍니다. 단, 공매목적부동산이 공동주택 전용면적 85㎡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 신탁자산

본 공매 물건 중 신탁자산 등의 경우 우선수익자 취회사항 광주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매매계약이 해지(해지는 경우 당사는 낙찰자를 결정하였더라도 낙찰자의 지위를 취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또는 매매계약의 해지)할 수 있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낙찰자가 신탁부동산 및 신탁자산 등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인허가(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에 이행하지 않고 등의 조건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본 공매물건 중 신탁자산의 유지관리 책임, 매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세제공과금 등과 관련된 일체의 의무 및 책임은 위탁자 및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있어 응찰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해제기를 당사에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면책되는 조건입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 신한은행(신한위탁), 하나은행(하나위탁) 및 우리은행(우리위탁)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계좌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에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입찰서 제출시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은행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 받아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설일이 지나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 발생될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납부계좌 추가발급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할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취소 또는 낙찰자결정 완료 후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차없이 환불되며,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토·일·휴일 제외)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후 본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자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자는 입찰금에 대하여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제후자의 명의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전제지반 등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차 없이 반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일로부터 매도인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금납부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당시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 매수자는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주체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6 공매참가조건

가.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세제공과금 등) 등에 대한 책임은 부담합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재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등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본 공매물건에 존재할 수 있는 채권·채권 소수원인사항(소유권보존 포함), 입차권,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인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지는 조건입니다. 추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매도인은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입찰자만이 있을 시 낙찰자는 매도 대금 외에 입찰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책임 하에 사전조사와 입찰에 응하지기 바랍니다.) 마. 공매물건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시설물 등 등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등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공매물건

물건번호	소 재 지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64-5 토지	
[건물]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64-5 건물	
1	[신탁자산] 전라남도 함평군 1064-5 건물 매 기계구 ※ 기계구 세부 내역 1. 감정평가기관: (주)에이알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2. 기준시점 / 작성일자: 2017. 01. 18. / 2017. 01. 19. 3. 감정평가서 번호: 제11 C1701-16138 4. 공매 요청 신탁자산은 상기 위 감정평가기관에서 2017.01.19,자로 작성한 감정평가서 상에 기재된 기계구·특대 일체

주1: 공매물건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동부증권(신탁위탁) 또는 발행회원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공매물건 중 신탁자산과 관련된 매매계약은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체결. 주3: 상기 공매물건 중 상기 신탁자산은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참조.

2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 입찰가

회 차	공매일시(입찰가능일시)	온비드 개찰일시	최저 입찰가격
1차	2018. 06. 25. 10:00 ~ 16:00	2018. 06. 26. 09:30	2,300,000,000
2차	2018. 06. 26. 10:00 ~ 16:00	2018. 06. 27. 09:30	2,070,000,000

주1: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2: Onbid 공매의 특성상 위, 각 입찰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공매일시 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다.

주3: 공매물건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일 경우, 최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각 차수별 유찰에 따른 차수 공매제정가격은 이전 차수 공매제정가격의 10%정도를 차감한 금액.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매사항
공매장소: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공매공고: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광주일보사, 당사 홈페이지(www.kukjistrust.com)
분 의 처: 국제자산신탁(주) 호남지역본부 ☎ 062) 470-3000
공매방법: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 회원가입 및 신탁학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Onbid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의 성립: 입찰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함다.
개 찰: 상기 입찰에 따라, Onbid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함다.
낙찰자 결정: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Onbid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다.(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음)나.다. 수의 계약
공매가 유찰될 경우 전 회차 공매제정가격 이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유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회차와 유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다.
미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지기 바랍니다. 또한 ①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제후자의 명도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② 당사의 고지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함다. 위 ① 및 ②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차 없이 원금만 반환함다.
부가가치세: 공매물건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며, 낙찰자에서 감정가격의 비율로 토지, 건물, 신탁자산 비용을 계산한 후 건물, 신탁자산 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함다. 부가가치세는 전금납부일에 추가로 납부하여야